

2022 봄 한올타리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2 No 1
2022.5.1

편집: 홍보위원회

이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유희주 시인이 쓴 ‘새로 들어선 길목’이란 글의 한 문장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오십명이 함께 걷다가 갈림길이 나오자 반으로 나뉘었으나 옆길에서 들어온 이들 때문에 오십 명이 함께 걷고 있네.

오십명이 함께 걷다가 갈림길이 나오자 반으로 나뉘었으나 옆길에서 들어온 이들 때문에 오십 명이 함께 걷고 있네.

오십 명이 함께 걷다가 갈림길이 나오자 반으로 나뉘었으나 옆길에서 들어온 이들 때문에 오십 명이 함께 걷고 있네.

오십 명이 함께 걷다가 갈림길이 나오자 반으로 나뉘었으나 옆길에서 들어온 이들 때문에 오십 명이 함께 걷고 있네.”

시인은 그동안의 인생 여정에서 4 번 공동체를 떠나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항상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사람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한계는 35 명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학자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신은 50 명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음을….

아니 필요함을… 그리고 몇 차례 바뀌어진 공동체 가족들로 인해서 그의 인생 여정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35 명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날지라도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절감합니다. 나를 내가 되게 하는 35 명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함께 남은 한해 즐거운 여행을 계속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문소 은퇴장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교회도 예배는 드리나 친교는 못하고, Delta 변이에 이어 Omicron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 상황이 더 어려워 졌습니다.

새해는 ‘임인년’ 이죠. ‘임’은 ‘까만색’ Black 이고, ‘인’은 ‘호랑이’ Tiger 를 말합니다.

새해의 띠는 ‘까만 호랑이 띠’입니다. 까만색은 흡수력이 강하고, 호랑이는 독립심과 모험과 도전적인 성격이 강한 한민족의 혼을 닮았습니다. 자 그러면 ‘호랑이’ 범띠에 일어난 우리교회 모습을 잠시 돌아볼까요?

- * 12 년전 ‘경인년’ 2010 년 ‘하얀 호랑이 띠’에 주일 성인 소구름 성경공부반 시작과 ECC 건립봉헌예배.
- * 24 년전 ‘무인년’ 1998 년 ‘누런 호랑이 띠’에 이영길 목사님의 첫 설교집 ‘야곱의 춤’ 출간.
- * 36 년전 ‘병인년’ 1986 년 ‘붉은 호랑이띠’에 미국 장로교 가입과 집사, 장로, 권사제도를 도입하신 홍근수 목사님 사임.
- * 48 년전 ‘갑인년’ 1974 년 ‘푸른 호랑이 띠’에 김갑동 목사님 취임과 구역모임 시작.
- * 60 년전 ‘임인년’ 1962 년 ‘까만 호랑이 띠’에 이계준, 함성국, 이상현 세분 목사님이 공동목회를 했습니다.

금년 회갑을 맞이하는 1962 년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손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하기, 코로나 백신과 Booster 맞기 아시죠. 저도 세번 모두 맞았습니다.

새해 ‘임인년’ Black Tiger ‘까만 호랑이 띠’에는 모든것을 흡수하는 흑색처럼 온 교우가 서로를 용납하고 합심하여, 한민족의 혼을 닮은 용감하고 낙천적인 호랑이 처럼 코로나를 이기는 하나님 은혜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VID-19 팬데믹 속 정신건강을 위한 십계명

이혜승 집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롬 12:11-12

예상보다 마냥 길어지는 팬데믹 사태에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나만 힘든가? 나만 이렇게 지쳐가나?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도, 내 이웃도, 앞 집 강아지도 모두 지쳐가고 있는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일 수록 더 의지하고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엔 내가 찾는 답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문구가 매일 떠오르는 요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 육신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도 살피시고 계신가요? Rick Warren 목사님의 한 설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보게 된 “팬데믹 속 나의 정신건강을 위한 십계명”을 귀한 이 사순절기간에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1. 욕심없는 일상의 소소한 은혜 나누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6

- 겸손모드로 소소한 행복과 일상의 은혜를 나자신에게 선물하고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사해보아요~

2.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약 1:21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92:2

- 매일매일의 시작과 끝을 짧고 굵은 기도 한 스펀과 daily bread 성경구절과 함께 해요~

3. 간단한 하루일정을 정하고 지켜내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5-16

- 눈 떠서 눈 감는 시간까지 놓치 못하는 필요 악인 스마트 폰과 잠시 안녕하는 일정도 살짝 넣어보아요~

4. 너무 많은 뉴스 접하지 않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 6:22-23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37

-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 진짜정보인지 확인은 필수! 정보의 홍수시대에 맞는 현명한 판단력을 기르자고요~

5. 매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눔의 시간 가지기.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살전 5:11

- 이미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들도 나와 소통이 필요할테니까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노래하고, 또 소외된 자들을 아우르는 매일매일을 만들어보아요~

6. 나의 감정 솔직하게 나누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 6:2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6

- 가슴 속 깊이 홀로 묵히고, 쌓아두며 마음의 병을 스스로 키우지 말고 뱉어내 보아요~ 아프고 헛헛한 또 쓸쓸한 감정들을 나누다보면 나만의 고민일 것 같던 여러 일들에 기도의 동지들이 생겨나 어느새 희망을 함께 나누는 나를 발견하실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가는 참 동역의 기쁨을 함께 누리보자고요~

7. 중요한 결정시 도움받기를 주저말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 15:22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 11:14

- 특히 저희 교회에는 넘치도록 많은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두드리세요! 반드시 열립니다!

8. 일도 열심히 휴식도 열심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30-31

- 잘 쉬어야 몸도 정신도 맑아지는거 아시죠? 하루종일 휴식없이 달리는건 심신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인거 기억하시고 나만의 휴식시간을 자주 가져보아요~ 휴식시간에 성경 한 스펀하시는건 보너스 에너지일테고요~

9. 나보다 더 어려움이 보이는 사람 도와주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 1:27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 11:25

-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저희에게 전하시는 말씀중에 하나네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망설임없이 도와주세요!

10. 내 콘트를 밖의 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약 2:22

- 내가 콘트를 할 수 있는 일엔 최선을 다해 일하고 내 손을 벗어난 일들에 대해선 근심 걱정 접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자고요~ 당신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엔 이유가 있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고, 또 그렇게 His Story 를 완성하시는거니까요.

당회보고

지난 1, 2 월 당회와 제직임직식을 통하여 올 한 해 섬기실 부서를 부여 받고 시무하시는 당회원 분들을 소개 드립니다.

2022 년도 섬기실부서

당회

위원회	당회장 당회 서기	이영길 목사 장양술 장로
1 부 교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강상철 장로
2 부 교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방경남 장로/구용한 피택장로
3 부 교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방경남 장로/이재익 집사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김동규 장로
1 부 교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안성완 장로/정광근 피택장로
2 부 교인위원회	위원장	안성완 장로
건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엄재관 장로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엄재관 장로
예배예수 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정의 평화 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장로/최현구 피택장로
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범 장로/회계: 김용욱 집사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이정민 장로/김경애 권사
홍보/출판/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김한나 장로/ 이혜승 피택장로, 배광현 집사
쉐마행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장양술 장로/최학수 집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	장양술(당회서기), 이정민(이사장), 엄재관, 김영범(consultant), 이영길(ex-officio)
회계 감사		김동규 장로
노회 총대		장양술 장로, 강상철 장로

재단이사회

이사장 이정민 장로

공천위원회

위원장 방경남 장로 부위원장 김영범 장로

2022 년도 구역장 명단

북동구역	배광현 집사	중앙 4 구역	노윤경 집사
북서구역	최현구 집사	중앙 5 구역	오형석 교우
남동구역	김연희 집사	중서 1 구역	권복태 장로
남서구역	이재일 집사	중서 2 구역	김제성 집사
중앙 2 구역	김경애 권사	중서 3 구역	이지용 집사
중앙 3 구역	이석원 집사	중서 4 구역	최진민 집사

2022 년도 소그룹성경공부 인도자 명단

반 이름	인도자	부 인도자
베드로반	권복태 장로	홍경자 장로
다니엘반	김경희 권사	김정림 권사
안드레반	박신영 장로	김영순 권사
빌립반	이지용 집사	윤원길 장로
요한반	방경남 장로	김옥식 장로
바울반	이재익 집사	정하균 집사
부부청년반	한문수 장로	윤병준 집사
홀다반	이재익 집사, 정광근 집사	
강의식 공부반	이요한 목사	
영어 성경공부반	이혜승 집사	

1월초에 코비드-19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타 주를 방문한 교인들의 현장참여를 한 주간 제한하고, 주일학교, 청년부의 현장모임도 몇 주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긴급대응을 했고, 이에 따라 1월에는 주일예배의 현장참여인원도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월중순부터 오미크론의 확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교인들의 현장참여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전역이 코로나-19 감소로 거의 모든 제한을 풀고 있어서 조만간 교회의 모든 모임을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 찬양대, 찬양팀, 방송팀, 통역팀, 안내위원등, 예배위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 주일 1, 2 부 예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1 월에는 예배의 현장 참가인원이 크게 감소했다가, 2 월중순부터 회복되어 4 월 17 일 부활주일에는 1 부 80 여명, 2 부 130 여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월 30 일에는 토요일에 내린 폭설로 주일에 시에서 emergency 가 내려져 모일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장참여 없이 온라인 녹화방송으로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2 월 6 일 1 부 예배에는 선이음 자녀 (선혁/이성지 집사)의 유아세례가 있었고, 2 부예배에는 제직 임직식이 있었으며, 재임 장로 (2 명), 재임 안수집사 (11 명), 그리고 신임 서리집사 (17 명)들이 임직을 했습니다. 또한 2022 년 구역장들과 소그룹 인도자들의 임명식도 있었습니다. 2 월 27 일 주일 2 부예배는 남선교회, 3 월 20 일 주일은 마리아 여선교회 (1 부)와 에스더 여선교회 (2 부) 헌신예배로 드렸습니다. 4 월 17 일 부활주일은 성만찬과 함께 드렸습니다.

2. 1 월 30 일 주일에는 신임서리집사를 위한 교육이 줌모임 (오후 2 시) 으로 있었습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강의와 예배예술위원회의 교회생활안내, 그리고 집사회장의 집사회 소개로 진행되었고, 총 17 명의 신임서리집사 중에 한국방문중인 1 명을 제외하고 2 시간동안 전원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3. 3 월 2 일에는 재의 수요일 예배가 녹화방송 온라인예배로 드러졌습니다.
올해 사순절 새벽기도회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취소되었습니다.
4. 4 월 15 일 성금요일 예배가 찬양대에서 준비한 칸타타 (십자가상의 칠언)와 함께 음악예배로 드러졌습니다.
5. 찬양대: 매주 1, 2 부 찬양대 1, 2 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2 년 팬데믹 기간 테너 솔로이스트로 수고했던 이장호 교우가 학업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6. 찬양팀: 계속해서 현장에서 2 부 예배의 찬양시간을 섬기고 있습니다.
7. 주일 사역자들을 위한 주일 도시락 준비: 9 월 중순부터 시작된 주일 1, 2 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 찬양대 지휘자/반주자/솔로이스트들, 1 부 방송실팀을 위해 도시락 제공을 계속해서 당회원들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17 명).
8. 이지용 집사가 1 부예배 방송실팀에 합류했고, 또 이지우 교우가 동시통역팀에 합류했습니다.
9. 타 교회를 섬기시는 무명의 성도님께서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봉사자들의 섬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격려금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 오셔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좋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쉐마행사 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6 월 쉐마의 밤 예고편

“쉐마의 밤”은 주일학교, 유쓰그룹, 청년부, 부청, 장년부 예배 등.. 각 세대와 부서에 따른 예배와 바운더리에 익숙해진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세대를 넘어 3 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생각, 그리고 삶을 이해하며, 더불어 일상의 예배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3 년째 이어지는 기나긴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 받을 기쁨의 시간조차도 빼앗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쉐마 준비팀이 아직도 추운 3 월 첫주 목요일 밤에 모였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우리교회의 활동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정평환과 BNI 등이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 “쉐마의 밤” 행사가 3 세대를 이어가는 이민교회의 히스토리를 쌓아가는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요한 정적을 깨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쉐마위 수장이신 장양술 장로님은 “네... 반드시 3 세대가 참여 가능한 이벤트로 쉐마의 밤을 채워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윤경문 목사님께서 유초등부/중고등부 학생들이 할머니/할아버지들의 인터뷰를 해서 짧은 영상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는 멋진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김수영 목사님과 정광근 집사님께서 찬양팀 인원을 확충해서 3 세대의 풍성한 나눔이 있는 찬양시간으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쉐마를 통해서 in person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는 말도 빼놓지 않으셨구요.

이번 6 월 쉐마의 밤은 쉐마골든벨 2 탄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민교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2 년도 신입제직 10 명은 쉐마 패션쇼를 통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동을 이어서, 이번에도 쉐마팀의 디바인 이해승 집사님은 신박하고 엉뚱한, 그렇지만 유투브와 재미가 가득한 문제 및 스크립트와 순서 전반을 챙길 예정이고, 강현기 집사님을 비롯한 집사회 테크팀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멋진 방송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번 쉐마의 밤에서도 재미와 기쁨, 그리고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6 월 4 일 토요일 저녁 7 시.. 잊지 말고 모두 교회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기도로 한층 성장해 가는 쉐마행사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홍보위원회

위원장 김한나 장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2 년도에도 “사순절 묵상집”을 교인들의 은혜의 글로 완성을 하여 발간하게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동안 경험하시며 받은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으로 부터의 은혜를 나눠주신 교인 여러분들의 마음 덕분입니다. 지난 2007 년도에 첫 책자가 발간되고 한 해도 걸르지 않고, 평신도들만의 간증, 묵상, 기도문 등으로 이뤄진 “보스톤 한인교회의 사순절 묵상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동역하시는 교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봄날을 맞이하며 교회 내의 식물, 화초등의 화분 흙 갈이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김명희/이재명 집사(상록기도회), 김학주 교우(부청), 윤대원 교우 (청년 2 부)께 감사드립니다.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한나 장로

KCMUSA.org (재미한인기독교재단)에서 “미주한인교회사” 발간을 위한 원고 청탁 받았고, 윤경문 목사님의 수고로 “보스톤한인교회 60 년사” 책자에서 발췌(12 페이지)한 내용과 사진을 2 월 중순에 보내었습니다. 3 월 9 일 교회 역사 저자 김흥기 목사(전 케임브리지 담임목사) 와 교회에서 인터뷰 진행: 이영길 목사, 윤경문 목사, 김문소 장로, 한승희 장로 내외분, 최연일 장로 내외분 등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헌금 및 자선 음악회]

(3 월 27 일 ~ 4 월 3 일)

지난 2 월 24 일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주변국가로 피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도시들은 전쟁의 포화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특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드러나면서 보고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폭력과 죄악으로 시작된 이 큰 불행에 맞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PCUSA 에서 펼치는 인도적인 구제의 모금에 동참하기 위해 구호 기금을 3 월 27 일부터 4 월 3 일 2 주간 교인들을 중심으로 기도와 특별 헌금을 모았습니다. 또한 보스톤한인교회는 난민 구호 자선 음악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고자 4 월 2 일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보스톤 한인 교회 본당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레위기 26:6)

모금과 음악회에 함께 해주신 보스톤 한인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과 기도와 관심 그리고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제 모금과 음악회를 통해 모인 헌금은 PCUSA 난민 구제 기구에 전달되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 저희의 기도와 마음이 그들에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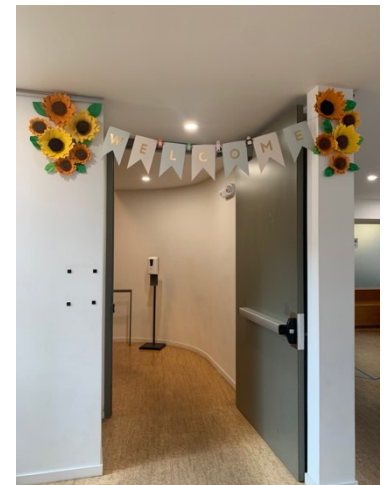
아직도 전쟁의 포화와 슬픔 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봄은 해바라기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여러 의미에서 생명이 꿈틀대고 희망이 자라나는 그야말로 봄이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네모난 화면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던 어린이들이 지난 가을부터 조금씩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친교실에서 모였었고, 드디어 지난 3월 20일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당인 ECC 채플에 2



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활주일인 4월 17일부터는 온라인예배가 문을 닫으면서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하던 하이브리드 방식이 끝나고, 전면 대면 예배로 복귀하였답니다. 다시 ECC 어린이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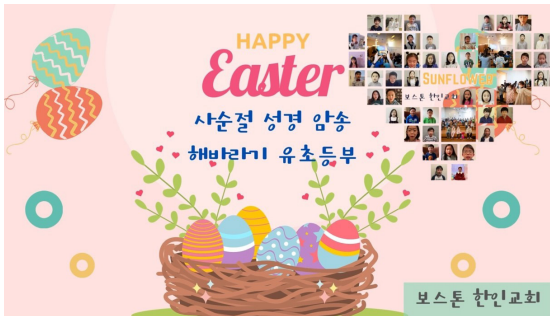
배당에 모여 함께 뛰며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스크로는 감춰지지 않는 미소와 기쁨이 예배당을 가득 채움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2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함께임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과, 집에서 예배하면서도 교회에서만큼의 열정으로 함께 해준 어린이들 모두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ECC 채플로 오기 위해서 건물 내의 환기 시설을 점검해주신 건물위원회와, 가장 큰 숙제였던 프로젝터를 아주 멋지게 설치해주신 정재원 집사님(교육1부 부위원장)과 강현기 집사님(유초등부 총무)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봄이 오기까지 짧지 않은 겨울과 적지 않은 도전들이 있었고, 1월 한 달 동안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잠시 전면 온라인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었지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부흥의 길을 여러모

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는 각 가정에서 사순절 동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시편 1편, 8편, 그리고 23편을 외우고,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설교해 주셨던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들, 특히 Brookline 타운을 위해 애쓰시는 경찰관들과 보건소 담당자 분들께 care packages와 선물을 담은 '복주머니'를 전달하여 우리의 고마움을 표현하였습니다. 2/13일에는 감사하게도 Brookline Police Department에서 경찰관 4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린이들을 만나고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 어른들의 사랑과 기도로 가능한 일이었는데,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는 집사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게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사랑해 주시는 보스톤 한인교회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안수민 교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스톤 한인교회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중고등부입니다! 꽃도 피고, 추운 날씨도 지나가는 이 몇달 간 아주 많은 작고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1 월동안 잠시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 정말 감사하게도 2 월부터 꾸준히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22 년의 첫 이벤트는 중고등부 Lock-In 이었습니다. 2 월 20 일, 많은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며 친교시간도 갖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번 Lock-In 의 중심부는 연극이었는데,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하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즐겁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6 학년 학생들도 중고등부에 더 환영할 수 있었고, 비록 다른 해에 비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게임과 기도로 알차게 보낸 시간이 되었습니다



3 월 중순부터 12 학년 학생들은 견신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배경미 전도사님과 강상철 장로님께서 이끄시는 견신수업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생들이 과정을 마치며 멋진 리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월 2 일에는 저희 교회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기금 모금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홍보를 돕고, 연주도 하며 중고등부 학생들도 소매를 걷고 도우러 주말에 시간을 내주었고, 마음을 다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응원했습니다. 부디 기금이 난민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월 16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올해의 수련회는 당일치기로 Double Tree Hilton Hotels 의 방을 빌려서 다녀왔습니다. 수련회에서도 연극을 했지만, 이번에는 “Peace”의 테마에 맞춰서 마음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미션! 연극 중에 ‘스펀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한팀은 스펀지로 캐릭터를 만들었고, 다른 팀은 스펀지로 사물을 만들었습니다. 귀여운 창의력과 빛나는 팀워크를 통해 두팀 모두 멋진 연극을 만들어냈고, 또 다른 게임도 하며 친교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팀이 인도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도 가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일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쁜 생활이 익숙해진 요즘, 아이들이 창의력과 놀이, 찬양과 기도로 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잘 풀리게 열심히 노력해주신 전도사님, 장로님, 교사들과 학생 리더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찬양팀을 위해 달려와 주신 안성민 선생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2022년이 시작인지 4개월 밖에 안 됐지만, 벌써 멋지고 특별한 한해가 되어갑니다.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학생들의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년 2부

보고자 윤경문 목사

청년 2부에서는 2022년도에 “Unity of the Spirit”이란 표어를 가지고, 섬김을 향한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예배와 주일 성경공부를 통해서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4월까지의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달에는 임원 Workshop을 갖고 6개월간의 활동과 수련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올해는 청년 2부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넘어, 교회 안 다른 그룹들과의 연합도 꾀하며, 보다 긴밀한 교제와 섬김을 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에는 신 임원진들에게 담당집사님이신 구용한 집사님께서 푸짐한 저녁식사를 베풀어 주시며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2월달에는 조별 단합 대회를 통해 청년 2부 공동체 안의 교제와 연합을 꾀하였고, 3월부터는 주일 점심을 청년 1부와 함께 주문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4월 1-3일에 청년 2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갖게 된 대면수련회를 감격적인 마음과 감사를 안고 Pilgrim Pines(N. H.)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섬김에로의 초대” (주제 구절: 신명기 6:5)였고, 강사로 는 김익태 목사(커네티컷 한인교회)을 모시고 말씀으로 도전받으며, 은혜로운 시



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한 섬김을 위해서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을 향하여 각자의 섬김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방을 떠나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토론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기뻐했던 수양회였습니다. 수양회를 준비를 위해서 임원진(김현모, 김현범, 임주광, 양원제, 조성경)/찬양팀(최효영, 이준석, 윤대원, 임주광)들의 수고가 컸고, 수양회 리더로서 새로 섬겨준 리더들(Peter Lee, 김하은, 김현범)이 수련회 기간 조원들과 멋진 호흡으로 잘 섬겨주어서 감사했습니다.



4월 말부터는 부서간의 연합과 섬김을 위해서, Mentorship 프로젝트를 청년 1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1부/2부 청년들이 전공분야와 직장관계, 신앙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mentor/mentee 관계를 맺어 섬김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주일 성경공부 그룹을 하나 더 늘려서 3그룹으로 하기로 하고, 정윤원, 임주광, 김현범 교우가 리더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교육 2부를 위해서 지난 6년간 섬겨주시고 휴무에 들어가신 한문수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올해부터 교육 2부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방경남 장로님, 구용한 집사님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청년 1/2부 청년들의 주일 모임을 위해 교우님들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주시는 점심 제공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부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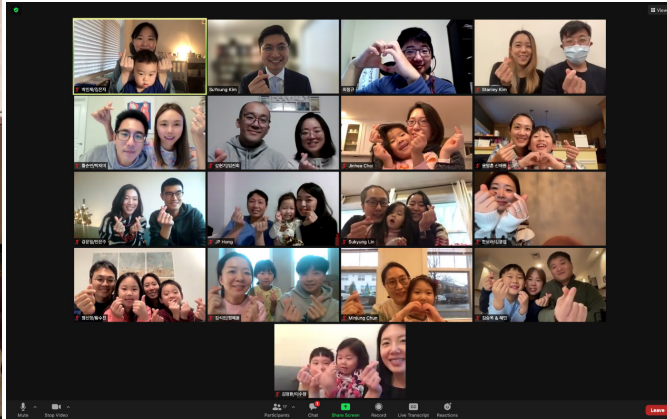
부회장 김학주 강다애

저희 부부청년부 (올해의 표어는 “풍성한 말씀, 감사하는 찬양, 온전히 매는 사랑의 공동체” 골로새서 3:14-16) 는 격주에 대면 형식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주는 김수영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말씀과 함께하는 예배 형식으로, 다른 한 주는 교제 위주의 형식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새로운 가정들이 부부청년부를 찾아주었고, 김윤승/장유림, 장진영/이영채, 심상완/박주은, 김민기/이지영, 김재윤/박건희 가정과 환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1 월에는 신준섭/박예리 가정에서 ‘신은유’ 가 태어났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교육 2 부를 섬겨주

셨던 한문수 장로님께서 안식년을 가지시고, 구용한 집사님께서 방경남 장로님과 함께 섬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안 밖의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교회 웹사이트의 부청 페이지를 개편하고 교회 복도에 있는 게시판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환경을 위한 나눔

"Earth Care and Sh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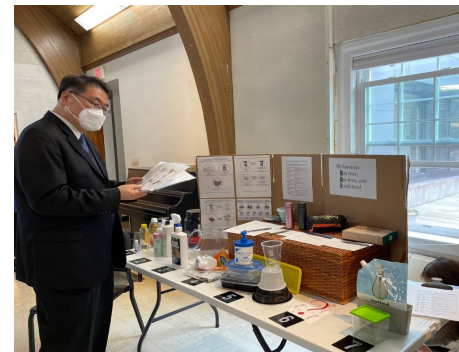
2022년 4월 24일 (일) 13:15 - 14:30
보스톤한인교회(32 Harvard St, Brookline, MA) 친교실

1. 수거 품목 : 옷(아이, 어른), 장난감, 책, 운동기구, 기타 용품(큰 가구 제외)
2. 물품 수거는 4월 3일 & 4월 17일에 친교실에서 진행
3. 형식 당일에는 \$5, \$10, \$20 지폐 지원 (Venmo 결제도 가능)
4. 모든 수익은 지원 단체 기부 예정

5. 기타 문의사항은 부부청년부 회장님에게
*이주빈 회장 (82jnowon@gmail.com)
*김학주 부회장 (peulkim1004@gmail.com)
부부청년부 &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특별히 4 월 24 일 주일 예배 후에는 Earth Day(4/22)를 맞아 ‘환경을 위한 나눔/Earth Care & Share’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정의평화환경 위원회 후원). 서로에게 있는 물건을 나눔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면서 환경을 보호 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는데 참 많은 교우님들께서 귀한 물건을 내주셨고, 아이들 옷 과 장난감부터, 밥솥, 전자레인지, 골프채, 자전거 등 서로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물려 받거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모아진 금액은 보스톤 한인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계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물건을 기부해주시고, 행사에 참여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부부청년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회장 서정희 집사 서기 임진희 집사

따뜻한 봄 햇살이 좋은 4월입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돌아오는 요즘 교회 활동도 활기를 찾고 2년동안 기다렸던 만남을 시작하며 설레이고 감사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스더 여선교회는 2021년 12월 회장 서정희 집사님, 부회장 최수경 집사님과 함께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2022년 에스더 여선교회의 바람은 좀 더 활기차고 생기있는 여선교회를 만드는데 노력하며 팬데믹 전 우리의 일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여보자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공식 행사가 바로 3월에 있었던 에스더 헌신 예배였습니다. 작년 회장이신 김정연 집사님의 에너지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통해 저희는 하나로 뭉칠수 있었습니다. 혹시 에스더 헌신 예배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었을텐데요. 저희는 여선교회 소개 영상을 통하여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무엇보다 누구든 언제든 마음만 있다면 에스더 회원이 되어 함께 봉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저희의 댄스 실력은 엉망이었지만, 저희는 재밌고 활기찬 모임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감춰 두었던 열정과 에너지를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단이 좀 더 반짝 반짝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월 20일 에스더 헌신예배 에스더 소개 영상>



<에스더 헌신 예배 특송
- 주 능력 안에 모든 일
할 수 있네>

에스더에서는 그 외에도 예배실 헌화, 임직식 코스지, 부활절 헌화 등을 준비하는 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게시판에서 사인업 페이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 헌신 예배 특송 시간 저희는 '주 능력 안에 모든 일 할 수 있네' 를 특송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나온거 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데로 받아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길 기도하며 오늘도 에스더는 함께 섬기며 함께 기쁨을 나누길 바래봅니다.



<임직식 코스지>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 진정원 집사

길었던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절과 함께 4 월의 중순에 접어든 우리 교회 화단에도 드디어 봄꽃들이 만발하였습니다. 차디 찼던 기운이 자취를 감추고 꽃이 피는 요즈음 온 세상이 환해진 느낌입니다. 지난 상반기의 활동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닌 최선의 사람들임을 느껴봅니다. 우리 각 개인의 한계가 있음에도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 모든분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로 마리아 공동체를, 보스톤 한인교회를 섬기는 2022 년 올해의 봄을 기도해봅니다.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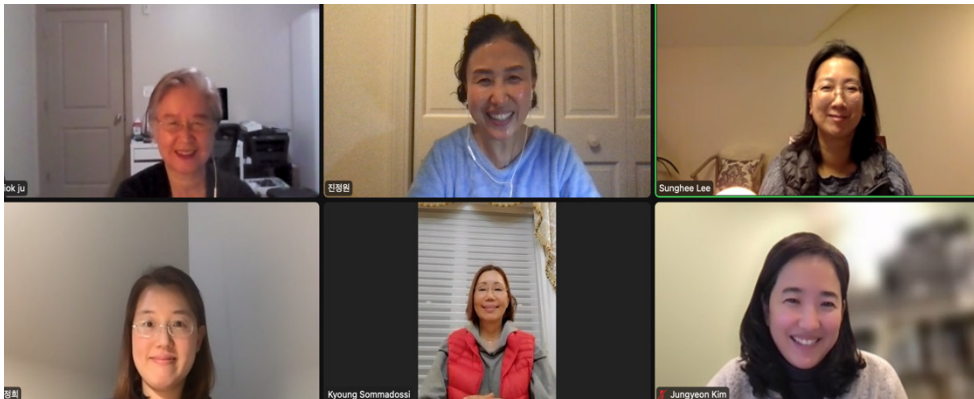


- 1/2 마리아 신년 총회가 있었습니다.
- 1/15 KCB 여성교회 세 개 부서- 에스더회, 마리아회, 권사회의 신규회장단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 3/4 세계 여성 기도 예배 : 미주한인교회 여성 연합회에서 준비한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위한 예배문이 있었습니다.
- 3/7 이영길 담임 목사님 생신에 카드와 작은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 3/20 여선 교회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믿음' 시편: 23 편 1-6 절 조은아 교수님)
- 여성 교역자와 교역자 사모님들 생신에 마리아 회원 전체가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배경미 전도사님 1/27. 김희진 사모님 4/11. 천민정 사모님 4/25)
- 4/24 김동숙 권사님의 큰 도움으로 헬터 음식 봉사를 하였습니다. (불고기, 잡채, 만두구이)

• 예배날자: 2022년 3월 4일(금) 7시 PM (총부 시간) 5시 PM (사무 시간), 6시 PM (선약 시간), 8시 PM (총부 시간)

• 예배장소: YouTube <https://youtu.be/YSH0GJUFJM>
한미장로교회 (교촌목사)
1149 W. Bloomingdale Rd., Rosca, IL 60143

주최: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Korean Church Women United, USA
530 Abandon St, Hoffman Estates, IL 60119
Tel: (224)200-8906 wjshhee@gmail.com
E-mail: kowu-usa@gmail.com



권사회

회장 주미옥 권사

지난 4 월에는 동북대회 여성연합회에서 주최한 4 월 연합수련회를 4 명의 본교회 여성 교인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권사회에서 마련한 후원금도 전달하였습니다.

일시: 2022 년 4 월 9 일(토)

장소: Trinity Lutheran Church (아가페노숙자교회),

New Haven, CT 강사: 김익태 목사 (코네티컷한인교회 담임목사)

주제: “차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이사야 53:13)



안녕하세요 보스톤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남선교회에서 그간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2월 27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신앙 성숙과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협조를 도모하고 기도, 선교, 교육, 구제 및 봉사 에 힘쓰고 있는 저희 남선교회의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최현구 집사님의 인도로 주님께 한마음으로 찬양을 올려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예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하나둘씩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5월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비드 팬데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신앙 안에서 웃고 우는 저희 남선교회와 보스톤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봄. 아무도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팬데믹의 긴 터널도 이제는 끝나가는듯 터널 끝에서 조금씩 빛이 보이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껏 교제하기 어려웠던 안타까운 팬데믹 가운데, 지난 2년간 집사회는 성도들이 다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날을 기대하며 교회의 건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단장하고 정비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2022년도 초반은 아직 교회를 다시 개방하고 본격적으로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행사들을 재개할 수 있을지 팬데믹의 추이를 지켜보며 고민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예배가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고, 대학부, 청년부, Ransom 중고등부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해바라기 유치등부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2022년도 집사회 또한 올해의 남은 3분기를 알차고 은혜롭게 보내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집사회에서는 올해의 첫 사역으로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해바라기 유치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 페이스 페인팅, 동물 모양 풍선 만들기, 팝콘 튀기기, 다트볼로 표적 맞추기, 그리고 성경퀴즈 등의 다양한 코너들을 계획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 스낵, 그리고 구디백 등을 집사회 임원들이 함께 준비중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배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5월 14일 토요일에는 올해의 첫 교회 대청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팬데믹의 끝자락을 이제 내려놓고, 공동체가 늘 함께 모이고 풍성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집사회에서 진행해갈 수 있어서 참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같은 기대를 품으신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올해 10월 9일 주일에는 Brookline 의 Larz Anderson Park 에서 몇년만에 전교인 야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가을에는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어 많은 교인들이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KCB 나누고 싶은 모습들



재의 수요일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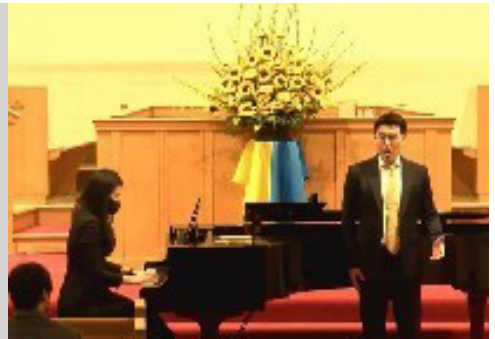


ECC Chapel projector 설치

A Benefit Concert for the Ukrainian Refugees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기금 모금 음악회

Saturday, April 2nd, 2022 | 7:30 PM
The Korean Church of Boston | 32 Harvard St., Brookline, MA
Attendance: In-Person & Online (대면 & 온라인 참여 가능)

Schoenberg, "Transfigured Night"
Works by Verdi, Schubert, and Donizetti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기금모금 음악회



성금요일 음악예배



해바라기 유.초등부 예배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당목사: 이 영 길



보스톤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